

THE RISING CITY ULSAN

25年06月 CIR REPORT



韓国 国際交流員

PARK YEMON

Contents

1. 都市情報

蔚山の地理的位置と
主要産業、蔚山の名称の由来

2. 自然と観光スポット

太和江国家庭園と日の出の名所・
良絶串（カンジョルゴッ）、および
嶺南アルプス

3. 歴史と文化

ユネスコに登録された「処容舞
（チョヨンム）」と、登録を目前に
控えた盤亀台岩刻画

4. 蔚山の名物

蔚山を代表する郷土料理、彦陽
（オニャン）プルコギや亭子ガ
ニ、そしてテジクッパ



写真出典：공공누리

韓国が誇る 美しい産業都市蔚山

都市情報

蔚山（ウルサン）は韓国南東部の海岸に位置する広域市で、釜山（プサン）からも近い場所にあります。面積は1,062.3km²、人口は約109万8千人で、韓国内でも有数の大都市です。現代（ヒュンダイ）重工業の造船所、現代自動車工場、大規模な石油精製施設などが集まっており、韓国の製造業の約13.4%を担い、「産業の首都」と呼ばれています。

都市名「蔚山」は、一般的に漢字で「蔚（茂る）」と「山」を用いて「鬱蒼とした山林」と解釈されることもあれば、古語で「ウル」が「囲い」や「城壁」を意味することから、山に囲まれた城郭都市という解釈もあります。蔚山は1997年に 広域市 に昇格し、現在の蔚山広域市となりました。

※広域市：人口100万人以上が基準

自然と観光スポット



蔚山は産業都市でありながら、美しい自然と観光資源が豊富な都市です。市街地を横切る太和江（テファガン）国家庭園は、蔚山を訪れたなら必ず立ち寄るべきヒーリングスポットです。2019年には韓国で2番目の国家庭園に指定され、都市の中にあるとは信じがたい自然の楽園が広がっています。

特に川沿いに長く延びる「十里竹林（シムニデスプ）」と呼ばれる竹林は、総延長4kmに及ぶ鬱蒼とした竹のトンネルで、都心の中にあるながら爽やかな散歩を楽しむことができる場所です。

写真出典：韓国観光公社



庭園内には生態、竹、季節、水生植物、市民参加、韓国の国花ムクゲなど6つのテーマで構成された20余りのテーマ庭園が設けられています。ここでは季節ごとに多様な花や樹木を鑑賞ことができ、市民や旅行者にとってのヒーリング空間となっています。



写真出典：韓国観光公社

海岸の名所としては艮絶岬（カンジョルゴッ）が有名です。艮絶岬は韓国本土で最も早く日の出を見ることができる場所として広く知られています。毎年新年の朝には、日の出を見ながら新年のお願いをするために多くの人々がここを訪れます。水平線の向こうから昇る真っ赤な太陽は、心を揺さぶる壮観な景色を見せてくれます。

Yeonghnam Alps



登山を好む方には「嶺南アルプス」と呼ばれる蔚州郡一帯の山岳地帯をおすすめします。その中でも標高1,159mに達する神仏山（シンブルサン）は蔚山で最も高い山で、頂上付近に広がる広大なススキ群落で有名です。

このほか神仏山をはじめ、迦智山（カジサン）、天皇山（チョンファンサン）など標高1,000mを超える複数の峰が連なる嶺南アルプスの稜線に沿ってトレッキングをしながら、蔚山の雄大な自然を身をもって感じることができます。

歴史と文化

写真出典：国家遺産ポータル



Cheoyongmu



蔚山は産業都市というイメージの背景に、深い歴史と文化を秘めた都市でもあります。まず紹介したいのは、ユネスコ人類無形文化遺産に登録された処容舞（チョヨンム）です。処容舞は蔚山の伝説上の人物「処容」をモチーフにした仮面舞踊で、

「悪い気を払う」という意味が込められています。目を引く華やかな衣装を身にまとった5名の舞踊家が仮面をつけて踊る舞は非常に印象的で、毎年蔚山で開催される処容文化祭ではその生き生きとした魅力を直に感じることができます。



もう一つ必ず訪れるべき文化遺跡は、蔚山の盤亀台岩刻画（パングデアムガクファ）です。約7千年前の先史時代に描かれたクジラ、鹿、トラなどの

動物が刻まれた岩絵で、現在韓国の国宝に指定されており、最近ではユネスコ世界文化遺産登録も目前に控えている非常に貴重な文化遺産です。

蔚山の名物



最後に「旅行」といえば欠かせないのが現地グルメです！蔚山の代表的な郷土料理の一つは彦陽（オニャン）プルコギです。彦陽地域で飼育された韓牛を薄くスライスし、醤油ベースのタレに軽く漬け込んだ後、炭火で焼いて食べるシンプルな

調理法の料理ですが、肉本来の風味と炭火の香りがよく活かされており、美食家の間で大変愛されています。特に現地の食堂では、プルコギだけでなく様々なおかずとスープが添えられ、ボリューム満点の食事を楽しむことができます。

また、海に面した蔚山は新鮮な海産物も豊富です。特に北区の鄭者港（チョンジャハン）は冬の珍味として知られるズワイガニで有名で、「鄭者ズワイガニ」という名前で全国的に知られています。リーズナブルな価格とプリプリの身が魅力で、冬のシーズンには観光客で賑わいます。



その他にも、近くに位置する釜山と慶尚南道の影響を受けた濃厚なスープの豚クッパも多く、地元住民に愛されています。

産業と自然、歴史とグルメが調和した蔚山で、忘れられない思い出を作ってみてください。

THE RISING CITY ULSAN

25年06月 CIR REPORT



한국국제교류원

PARK YEMON

Contents

1. 도시정보

울산의 지리적 위치와
주요 산업, 울산 명칭의 유래

2. 자연과 관광명소

태화강 국가정원과 해돋이 명소
간절곶 및 영남알프스

3. 역사와 문화

유네스코에 등재된 '처용무'와
등재를 앞 둔 반구대암각화

4. 울산 별미

울산 대표 향토요리 언양불고기와
정자대게, 돼지국밥까지



한국이 자랑하는 아름다운 산업도시 울산

도시정보

울산은 한국 남동 해안에 위치한 광역시로, 부산에서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면적은 1,062.3km², 인구는 약 109만 8천 명으로, 한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대도시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조선소, 현대자동차 공장, 대규모 석유 정제 시설 등이 모여 있어, 한국 제조업 생산의 약 13.4%를 담당하며 '산업 수도'라 불립니다.

도시의 이름 '울산'은 흔히 한자로 '울창할 울(蔚)'과 '산 산(山)'을 써서 '울창한 산림'이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옛말에서 '울'이 '울타리'나 '성벽'을 뜻하여, 산으로 둘러싸인 성곽도시 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울산은 1997년에는 광역시로 승격해서 현재의 울산광역시가 되었습니다.

자연과 관광명소



울산은 산업도시이면서도 아름다운 자연과 관광 자원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태화강 국가정원은 울산에 왔다면, 꼭 들러야 할 힐링 명소입니다. 2019년에는 한국에서 두 번째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으며, 도시 속에 있다고는 믿기 힘든 자연의 낙원이 펼쳐집니다.

특히 강변을 따라 길게 뻗은 십리대숲이라 불리는 대나무숲은 총 길이가 4km에 이르는 울창한 대나무 터널로, 도심 속에서도 상쾌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사진출처: 한국관광공사



정원 내에는 생태, 대나무, 계절, 수생식물, 참여, 무궁화 등 6개의 주제로 꾸며진 20여 개의 테마 정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계절마다 다양한 꽃과 나무를 감상할 수 있어 시민들과 여행자들의 힐링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한국관광공사



해안 명소로는 간절곶이 유명합니다. 간절곶은 한국 본토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매년 새해 아침이면 해돋이를 보며 소원을 빌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은 마음을 울리는 장관을 선사합니다.

사진출처: 한국관광공사

Yeonam Alps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영남알프스’라 불리는 울주군 일대의 산악지대를 추천드립니다. 그중에서도 해발 1,159m에 달하는 신불산은 울산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정상부근에 드넓은 억새풀 군락으로 유명합니다.

이외에도 신불산을 비롯한 가지산, 천황산등 해발 1,000m가 넘는 여러 봉우리가 이어진 영남알프스 능선을 따라 트레킹하며 울산의 웅장한 자연을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

사진출처: 국가유산위원회



Cheoyongmu



울산은 산업도시라는 이미지 뒤에, 깊은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먼저 소개하고 싶은 것은 바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처용무입니다. 처용무는 울산의 전설 속 인물 ‘처용’을 모티브로 한 가면무용으로,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화려한 복장을 한 다섯 명의 무용수가 가면을 쓰고 추는 춤은 매우 인상적이며, 매년 울산에서 열리는 처용문화제에서 그 생생한 매력을 직접 느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꼭 가봐야 할 문화 유적지는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입니다. 약 7천 년 전 선사시대에 그려진 고래, 사슴, 호랑이 등의 동물이 새겨진 바위그림으로,

현재 한국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눈앞에 두고 있는 매우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울산의 별미



마지막으로 '여행'하면 빠질 수 없는 현지 먹거리입니다! 울산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 중 하나는 언양불고기입니다. 언양 지역에서 사육된 한우를 얇게 썰어 간장 베이스의 양념에 살짝 재운 후, 숯불에 구워 먹는 심플한 방식 요리지만,

고기 본연의 풍미와 불향이 잘 살아 있어 미식가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식당에서는 불고기뿐 아니라 다양한 밑반찬과 국이 곁들여져 푸짐한 한 끼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동해에 면한 울산은 신선한 해산물도 풍부합니다. 특히 북구의 정자항은 겨울철 별미로 알려진 대게로 유명하며, '정자대게'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통통한 살이 매력이며, 겨울 시즌에는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그 외에도 인근에 위치한 부산과 경상남도의 영향을 받은 진한 국물의 돼지국밥도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어요. 산업과 자연, 역사와 미식이 조화로운 울산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길 바랍니다.